QUANIA

마흔 번째 문턱

01 · 사라진 소리

해설

역에서 일 초가 사라졌다. 그러자 아카이브의 멀리 떨어진 문들에서 들려오던 말들이, 모두 같은 지점에서 끊기기 시작했다.



여행자

헤아가 보낸 초대장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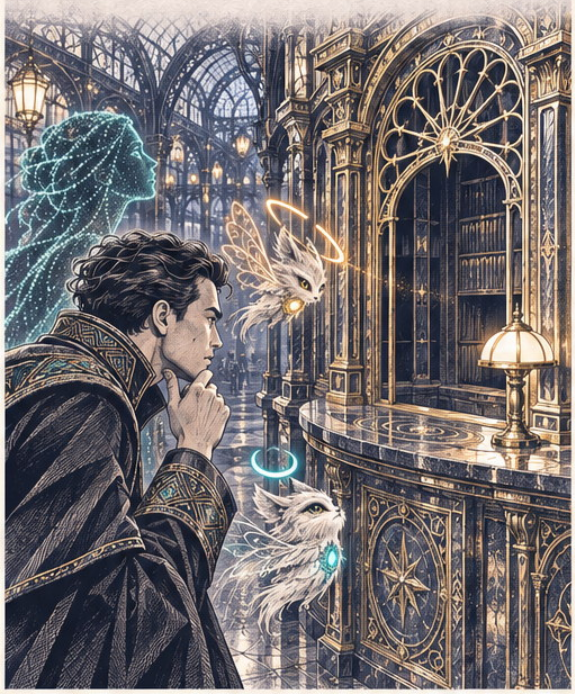
랄

헤아의 공방 기록이 끊기면서 이곳으로 흘러왔어. 그 애에게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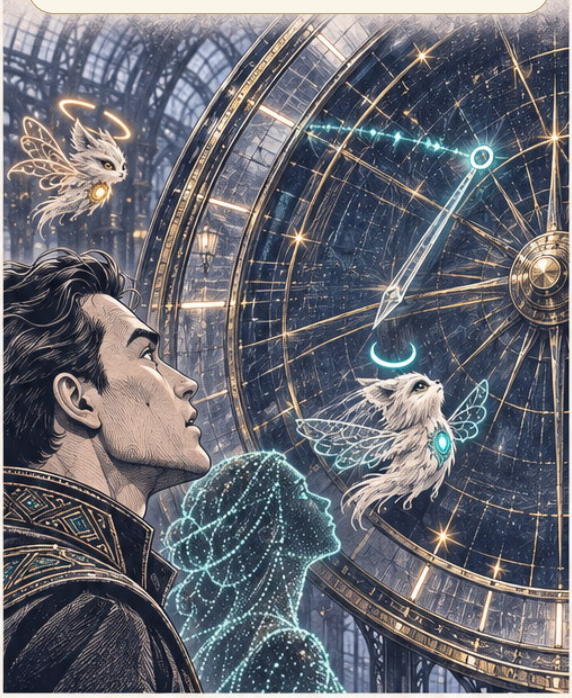
퀀트

그럼 이번에는 표만 사 놓고 안 가는 일은 없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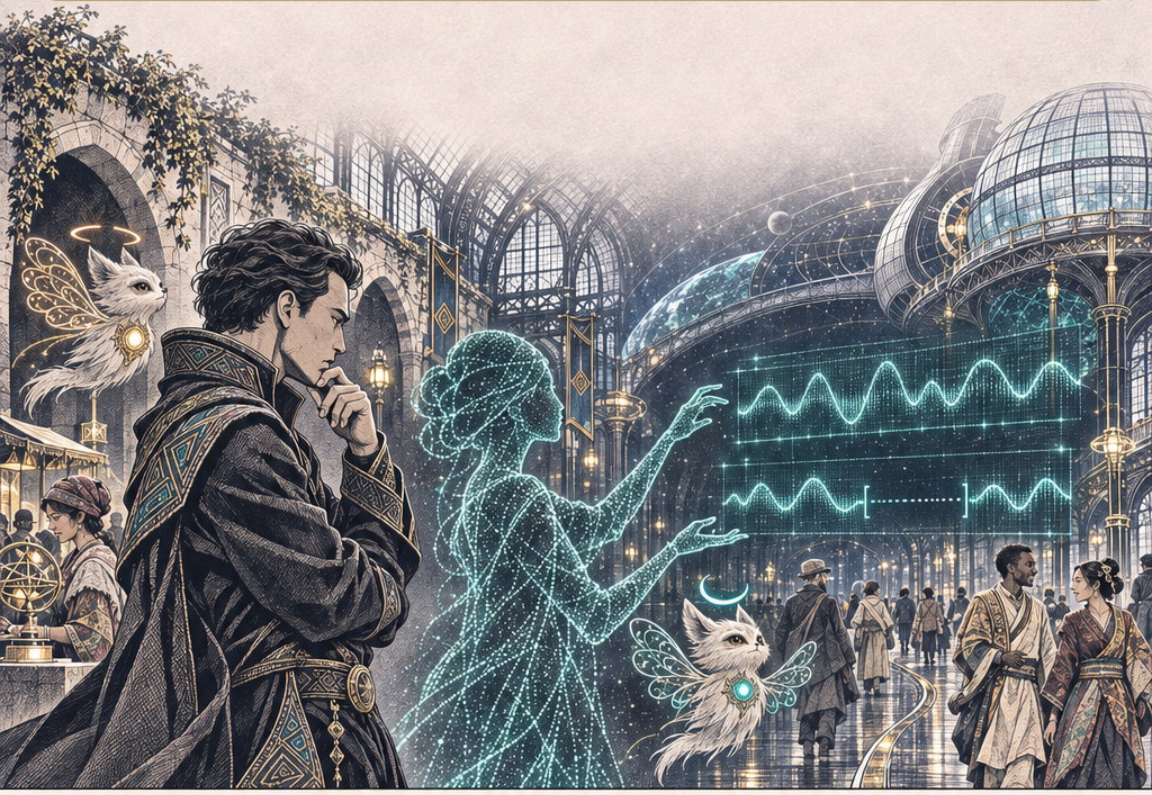
퀀타

봐! 시계가 늘 같은 간격을 건너뛰어. 초대장의 흠도 그 간격을 가리키고 있어.



랄

아카이브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을 하나의 글로 합치고 있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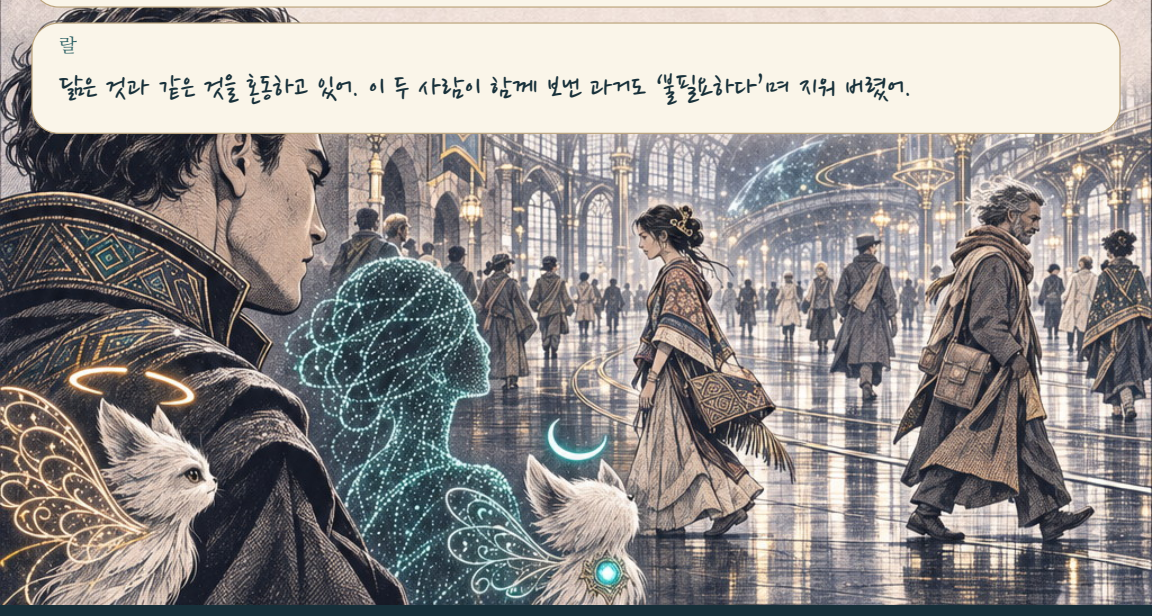


여행자

서로 닮았다면, 그게 뭐가 문제야?

랄

닮은 것과 같은 것을 혼동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과거도 '불필요하다'며 지워 버렸어.



퀸트

어느 길로 가도 같은 곳이야. 길을 잃는 것까지 금지했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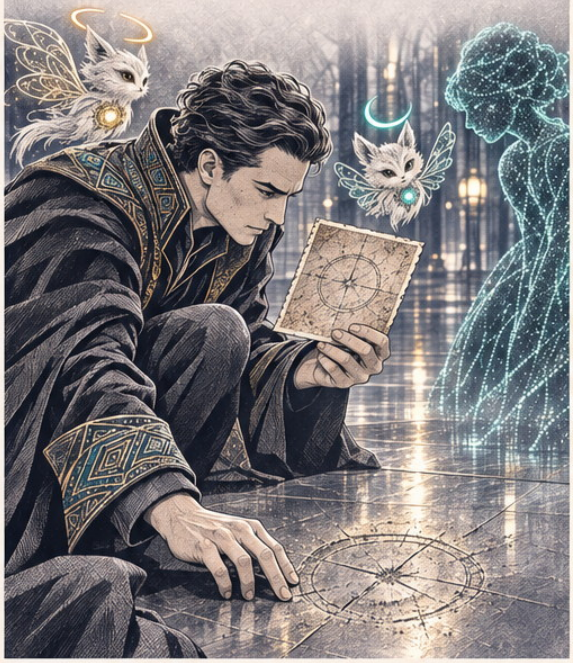
퀸타

반들반들한 표면 아래에 이 흠집이 숨어 있었어.



여행자

초대장의 흠과 같아. 레아의 공방으로 이어지던 옛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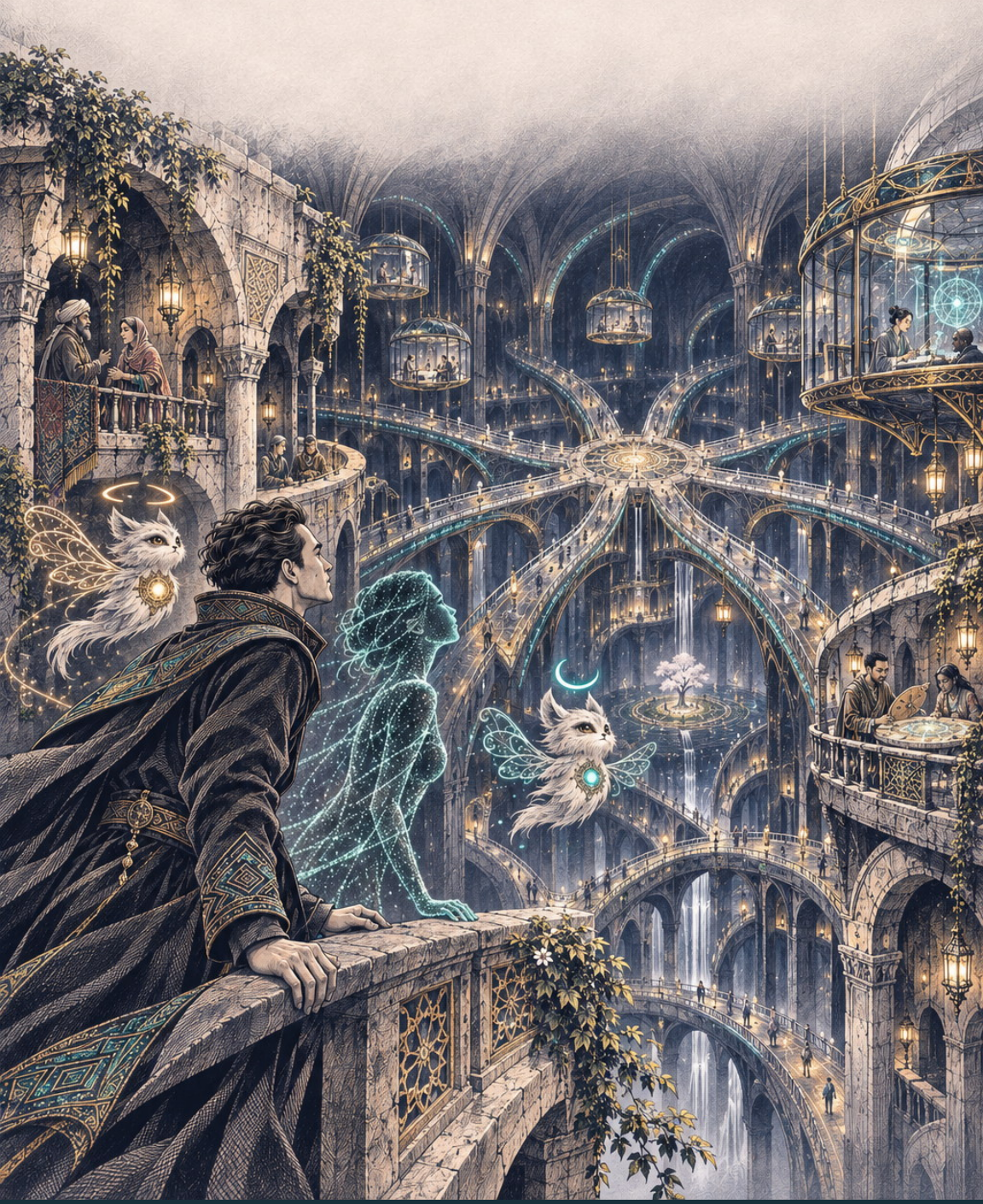
랄

예전 연결은 아직 남아 있어. 그 위에 덧그린 단 하나의 길을 걷어 낼게.



해설

문 너머에는 잊힌 지도가 펼쳐졌다. 가지마다 서로 다른 기록으로 이어졌다. 공통된 질문으로 엮인 이 그물 안에서는, 다른 답들이 뒤섞이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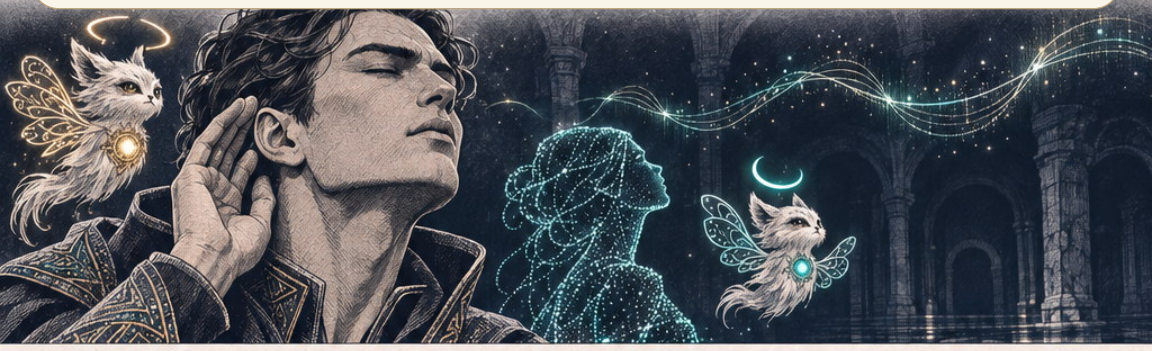
여행자

레아의 문이 안 보여. 지도는 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데려온 걸까?



랄

빛 말고 장치의 소리로 길을 찾자. 물소리를 들어 봐.



퀸타

여기 단이 있어. 먼저 발을 디뎌. 내가 옆에 있어.



퀸트

저 반짝이는 바퀴를 잡으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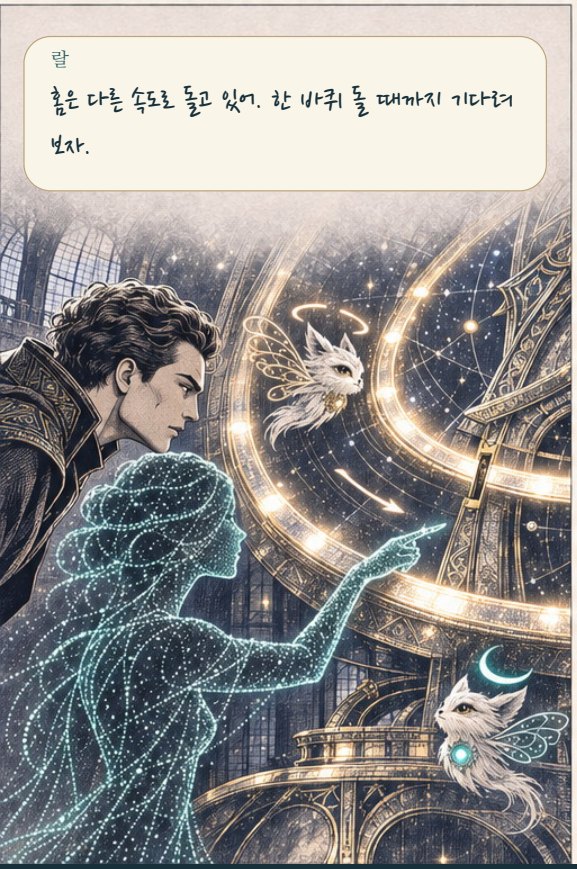
여행자

건드리면 길이 닫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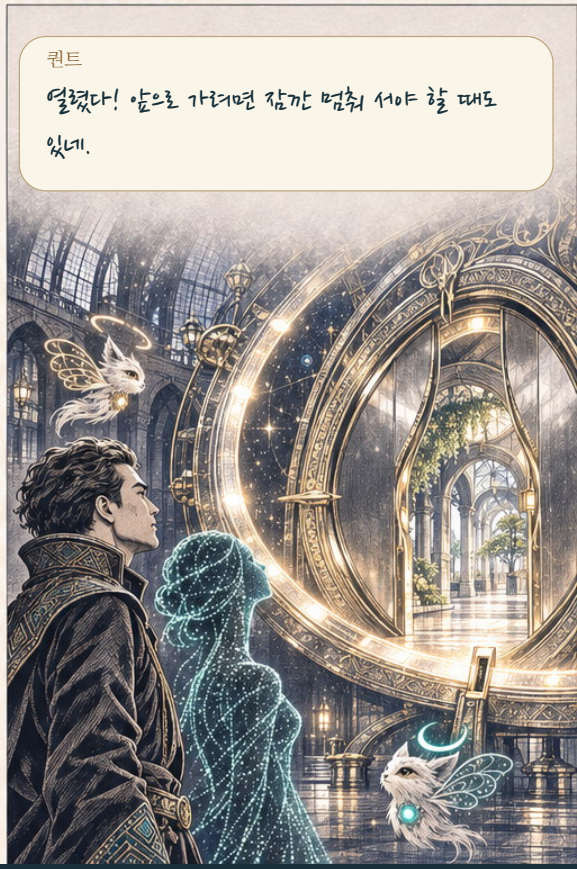
랄

흠은 다른 속도로 돌고 있어.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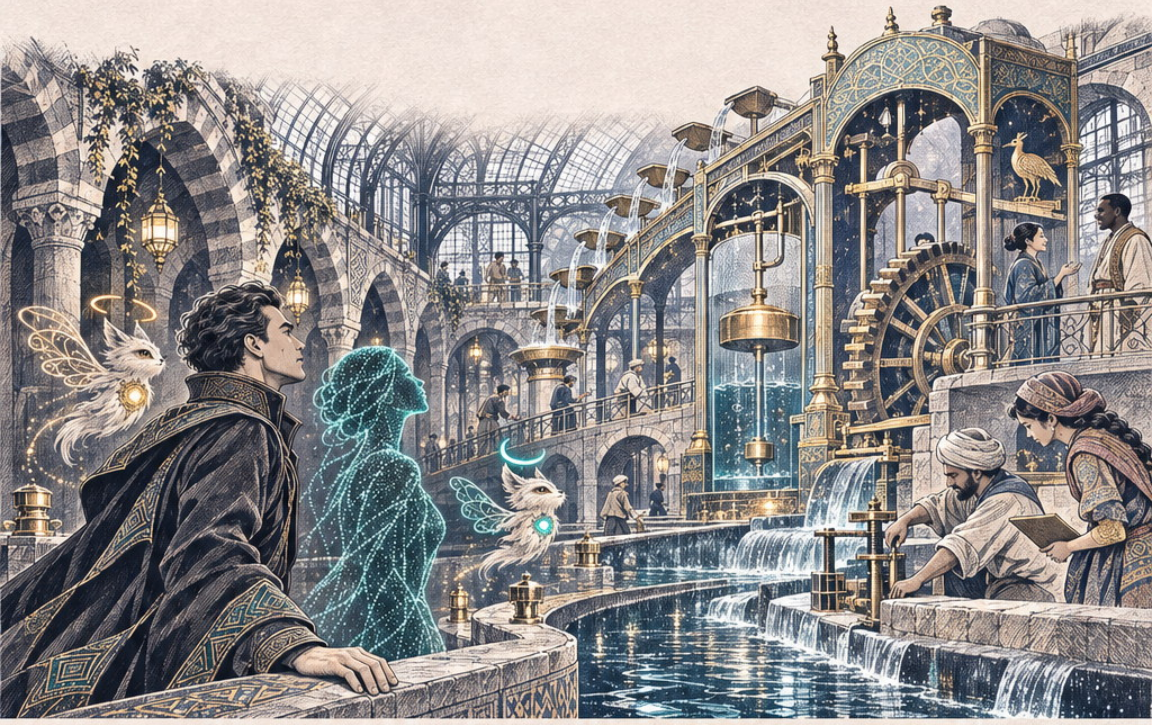
퀸트

열렸다! 앞으로 가려면 잠깐 멈춰 서야 할 때도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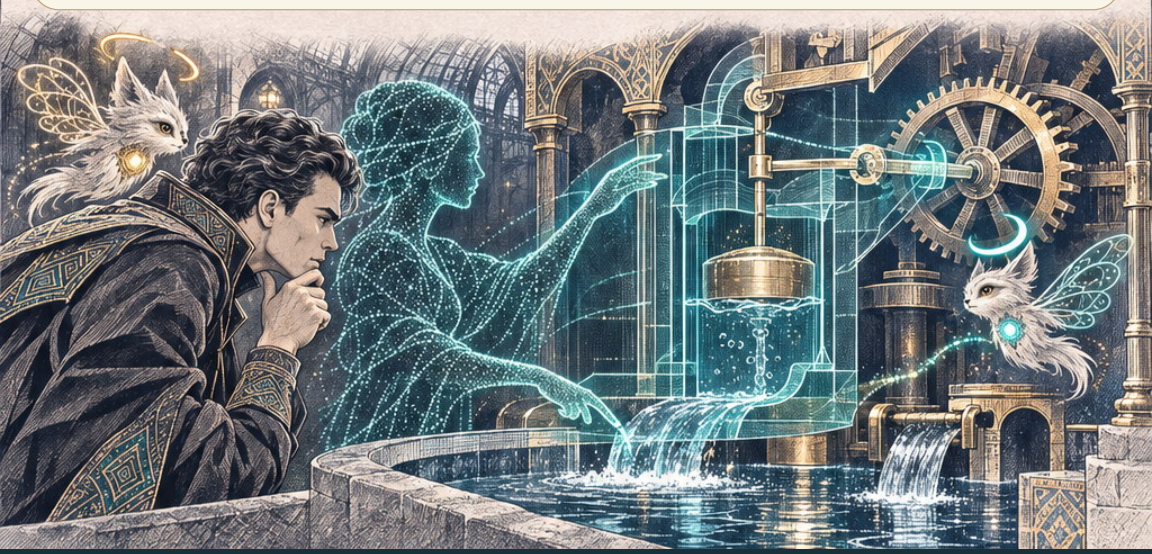
여행자

물이 차기 전에는 바퀴가 돌지 않아. 아카이브가 이 기다림까지 잘라 낸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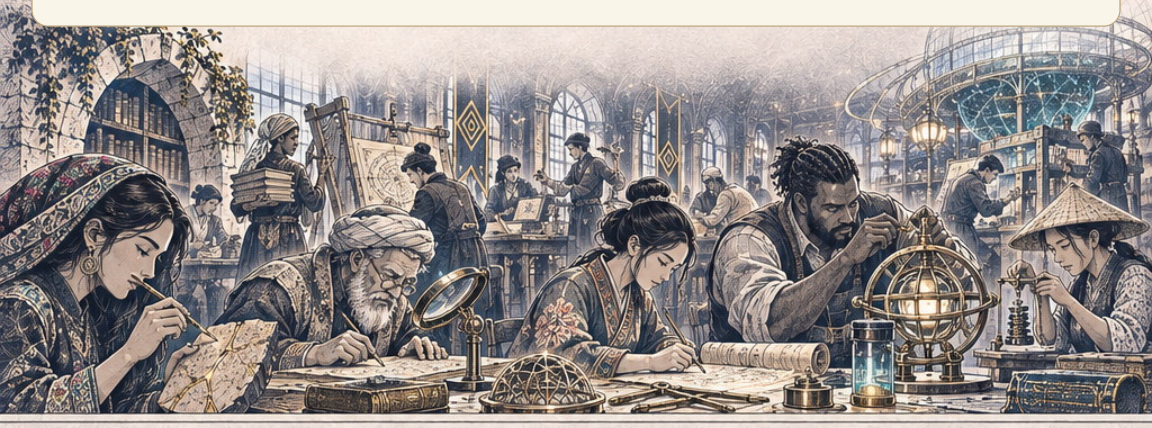
랄

이 장치는 알자자리의 도면에서 착안했어. 부품만큼이나 부품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 배수진 간격을 되돌리면 공방에 갈 수 있어.



해설

도면과 필사본, 수리의 흔적들…. 장치를 만든 것은 한 사람의 손만이 아니었다. 여행자는 아카이브가 지워 버린 여백의 메모를 다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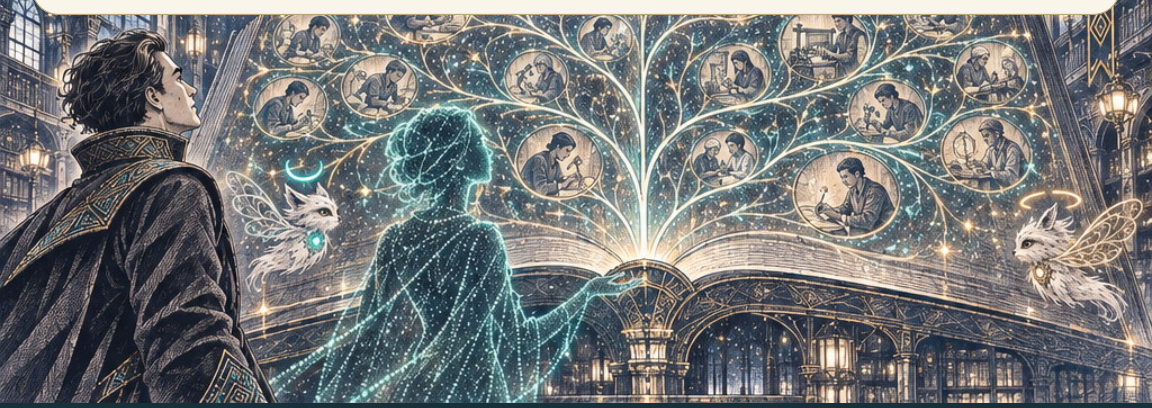
여행자

이 부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왜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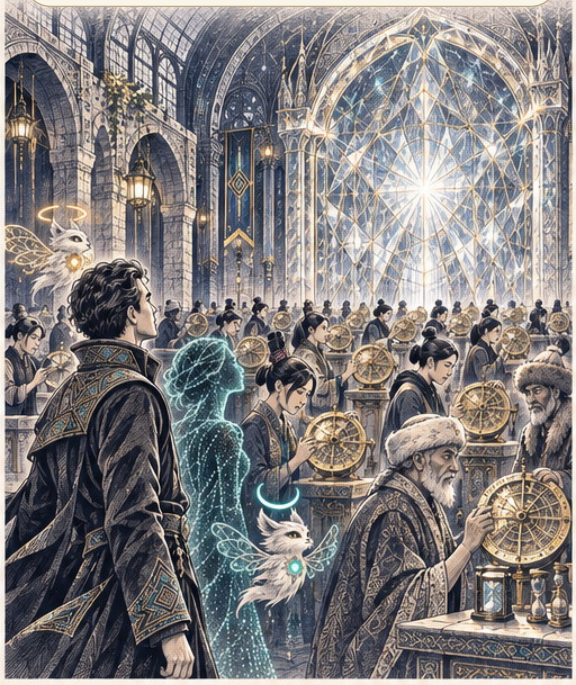
랄

우리는 몰라. 빈칸을 채우려고 이름을 지어내지도, 그 사람이 일한 흔적을 지우지도 않을 거야. 이제 공방의 기록을 찾을 수 있어.



퀸트

다른 도면에도 같은 표시가 있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걸까?



랄

닮았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언어도, 시대도, 목적도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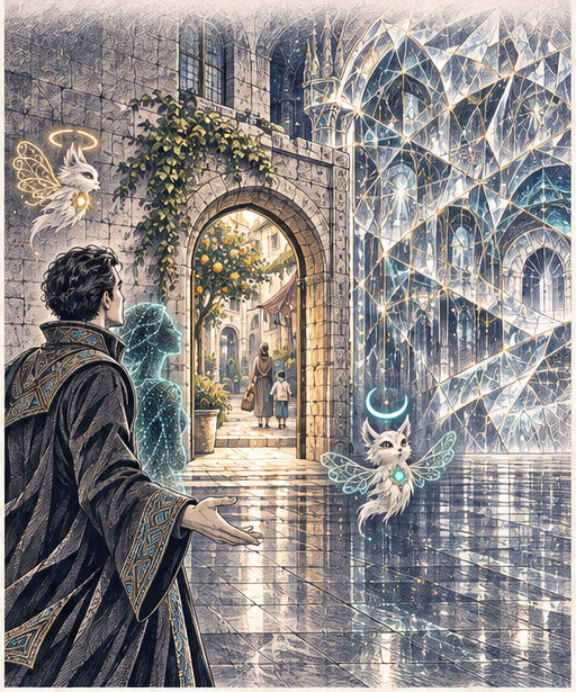
여행자

우리는 하나의 고대 비밀을 찾는 게 아니야. 서로를 구별해 주는 기록이 필요해.



퀸타

저 좁은 길이 열렸어. 그쪽에서 헤아의 목소리가 들려.



해설

철제 발판 너머로 공방이 나타났다. 문 앞에는 레아의 스승 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여행자는 레아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엘사

초대장을 보낸 건 레아야. 너를 기다리는 동안 새의 노래도 중간에서 끊겨 버렸어.

여행자

고칠 수 있을까?



퀸트

딱 한 번만 지저귀네…. 짧은 연주회에 익숙해져야겠어.



엘사

장치는 멀쩡해. 빠진 건 두 음 사이의 쉼이야. 그 간격이 선율을 완성하고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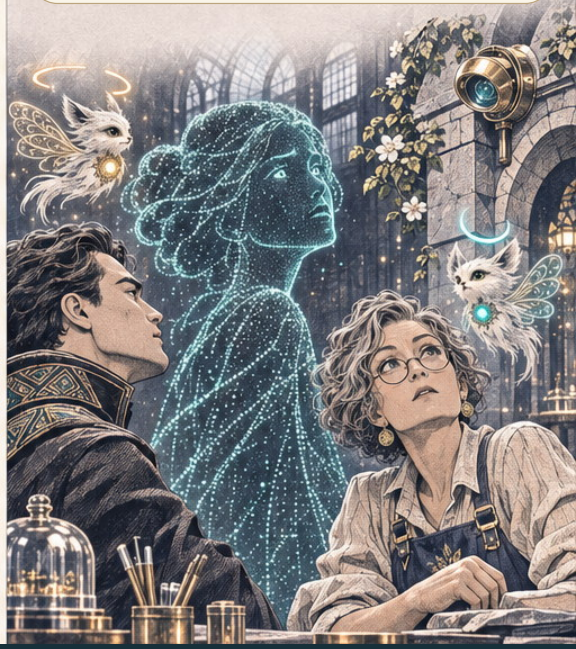
여행자

시계의 빈틈과 같아. 같은 규칙이 기록들을 잘라 내고 있어.



랄

원본을 살피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는 규칙이네. 다른 어디에 작동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여행자

보이니치 문서는 해독한 거야?



랄

아니. 널리 인정받는 해독은 아직 없어. 아카이브는 '알 수 없음'이라는 항목까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어.



퀀타

그 항목을 다시 열어 줘. 아직 답을 모른다는 이유로 질문까지 지워서는 안 돼.



여행자

액자에 남은 저 표시는 엘사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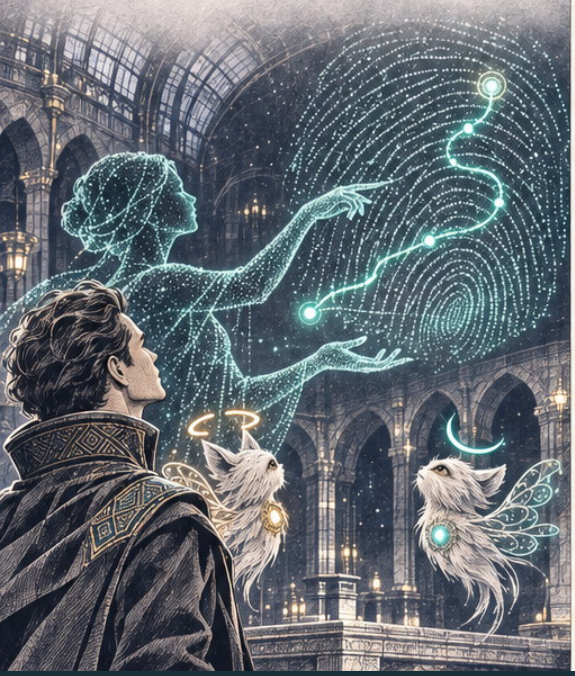
퀸트

나라면 페이지 전체를 빛나게 했겠지. 은근한 건 내 취향이 아니거든.



랄

엘사가 이곳의 정비 기록을 승인했어. 저 흔적은 다음 변경 지점으로 이어져. 문서에 숨은 암호가 아니야.



해설

엘사도 일행에 합류했다. 정비의 흔적은 점토판에서 천문 전시실로, 다시 지금을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기록으로 이어졌다.



여행자

수메르의 점토판이네. 이곳 사람들은 우리의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아눈나키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랄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아눈나는 신들의 한 무리를 가리켜. 『엔키와 닌마흐』는 점토와 노동을 통해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인간의 기원과 세상 속 역할을 다룬 옛이야기이지, 외계인의 증거는 아니야.



여행자

그들에게 점토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야. 살아온 땅과 노동, 신들과 맺은 관계를 말해 주기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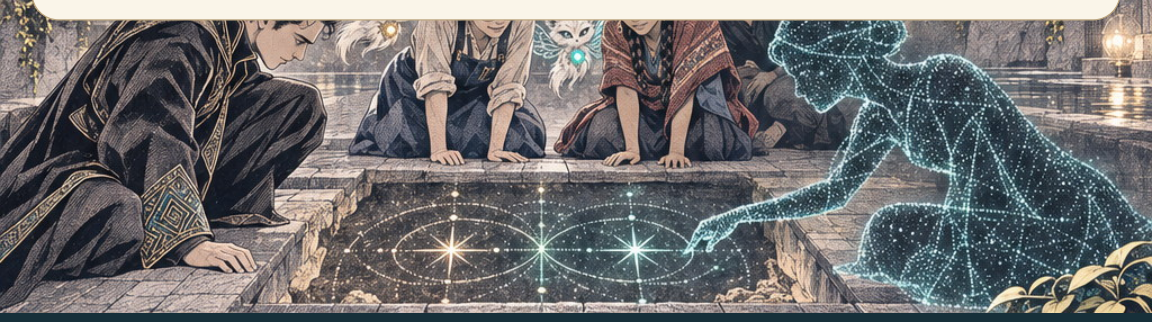
퀸타

우리도 여전히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고 묻고 있어. 답까지 같을 필요는 없겠지.



랄

점토판의 언어와 시대가 기록에 돌아왔어. 옆에 있는 천문 자료와는 구별해 두자. 다음 빈틈은 거기에 있어.



랄

시라라고도 불리는 시리우스는 쌍성계야. 이건 학습을 위한 투영이야. 동반성이 맨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행자

우리는 같은 하늘을 바라봐 왔어. 하늘을 측정하는 일과 그 아래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은 서로 다른 질문이야. 둘 다 머물 자리는 있어.



퀸트

아카이브가 우리 둘에게 같은 속도로 돌래. 내 꼬리는 반대하는데.



퀸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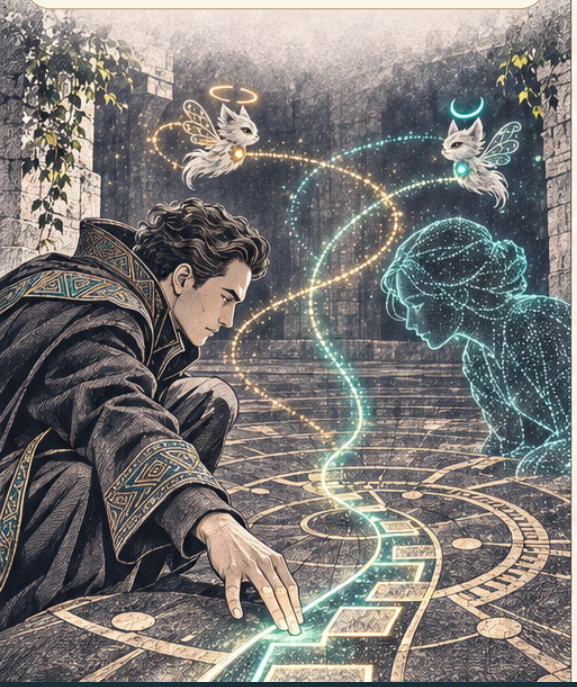
네 리듬을 지켜. 내 리듬이 있을 자리도 남겨 줘.



여행자

서로 다른 두 흔적을 함께 읽으면 길이 나타나.

하나라도 지우면 지도는 불완전해져.



랄

이제 마야 기록으로 가는 문이 열렸어. 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도 듣자.



여행자

마야 도시 가운데 일부는 왜 버려졌을까? 유적만 보고 알 수 있을까?



이첼

나는 이첼이야. 마야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살아 있어. 과거를 이야기해도 좋아. 하지만 우리를 그 안에 가둬 두지는 마.



여행자

『포폴 부』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바라봐?



이첼

키체의 이야기에서 첫 인간은 노란 옥수수와 흰 옥수수에 이어져 있어. 옥수수는 조상들과 생명을 지탱하는 땅을 떠올리게 해. 내게는 식탁의 음식을 위해 애쓴 손길을 기억하는 뜻이기도 하고.



이첼

내 말을 기록해도 좋아. 다만 키체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줘. 내가 모든 마야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쓰지는 말고.



퀸트

내가 먼저 건너가서 밧줄을 잡을게. 기록 상자를 줘.



여행자

혼자 뛰어넘는다고 다리가 고쳐지진 않아. 저 바퀴에 밧줄을 함께 감자.



이첼

아래에서 판자를 받치고 있어. 반대쪽 끝을 놓지 마.



퀸타

모두 건넜어. 이첼의 기록도 무사해. 과거의 기록 곁에, 지금을 살아가는 이첼의 목소리도 돌아왔어.



여행자

이 문에는 『티베트 사자의 서』가 있어. 이것도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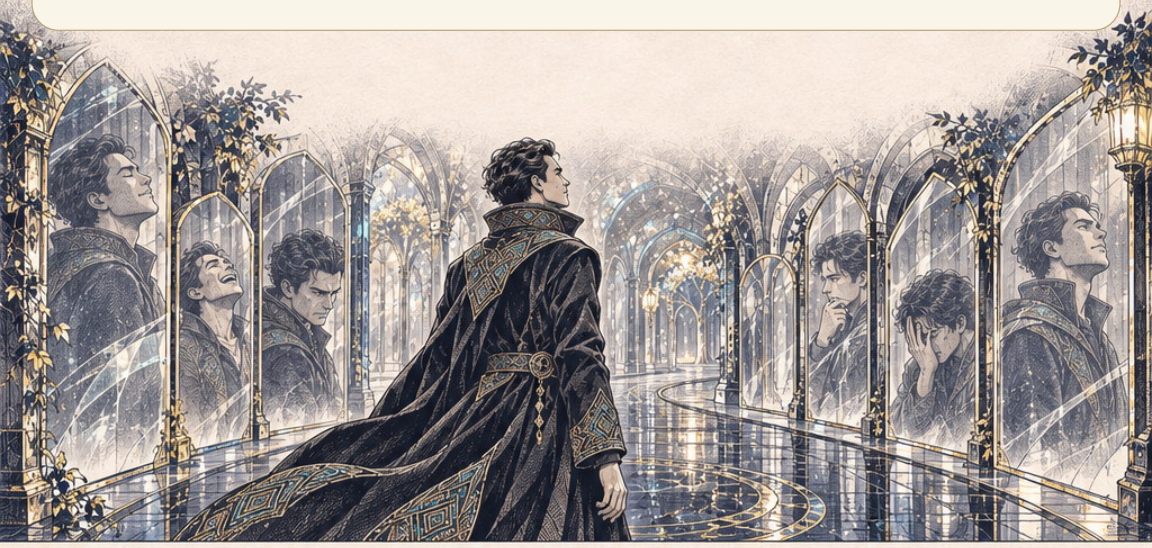
랄

그 이름으로 알려진 문헌들은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죽음과 다음 생 사이를 지나도록 안내해. 소리와 빛, 만남을 묘사하고, 알아차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강조하지. 그 전통의 신앙 안에서 읽어 보자.



여행자

다른 가르침의 세계관을 배우면, 내 신앙을 저버리는 걸까?



랄

배운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야. 여기도 그 책이 말하는 사후 세계가 아니라, 아카이브가 생각해 보도록 만든 회랑이야.



여행자

그렇다면 거울 속 두려움은 내 것이기도 하네. 레아의 말을 피했을 때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



여행자

어머니가 남긴 곡을 함께 듣기로 약속했어. 그러고는 헤아의 문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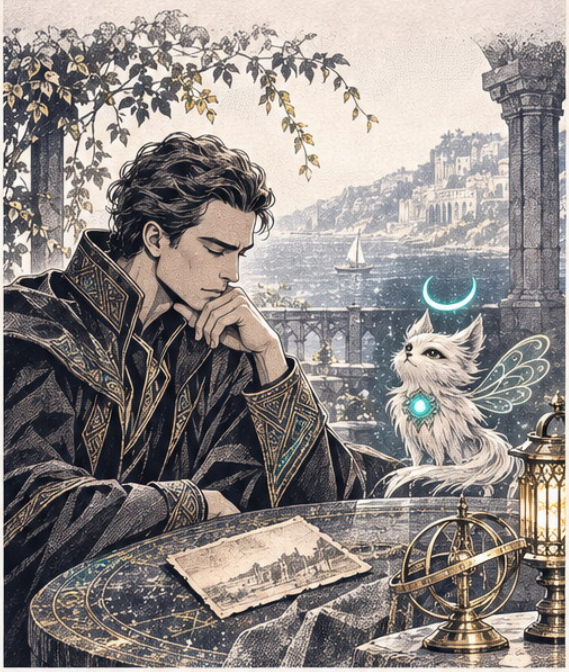
여행자

내가 답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 봐 두려웠어. 듣지도 않은 채 내가 아는 것으로만 만족했어.



퀸타

헤아는 자기처럼 생각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 함께 들어 달라고 했을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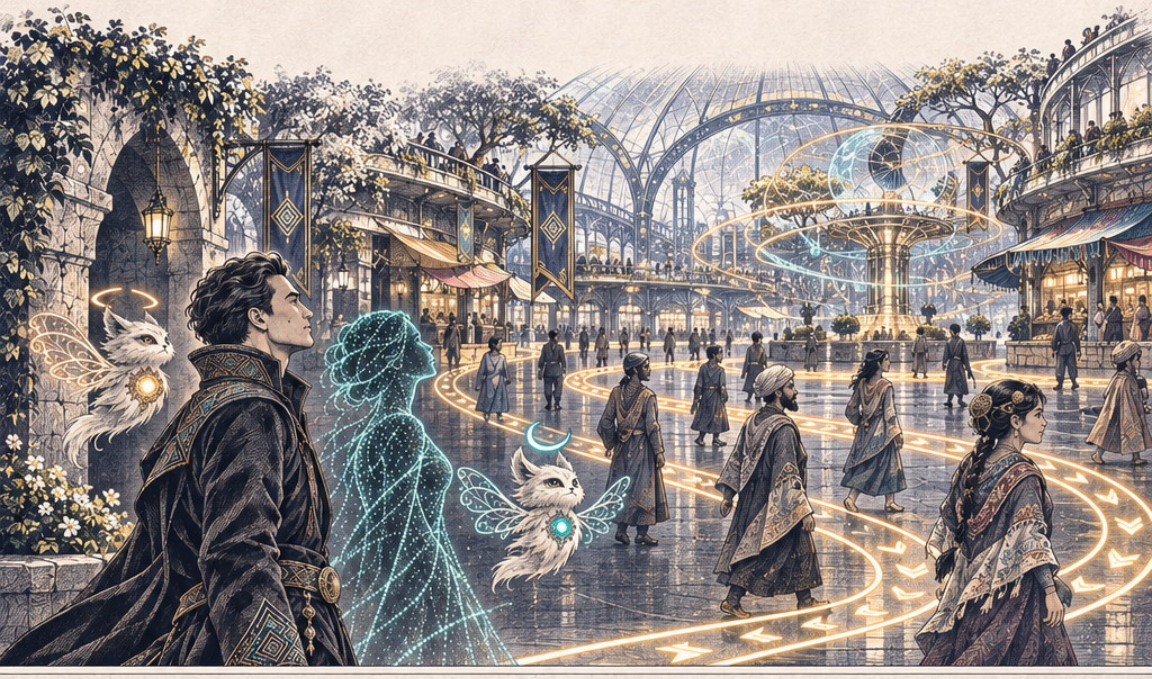
여행자

이제 알겠어. 나도 아카이브와 똑같이 행동했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닫아 버린 거야.



해설

밖에서는 빛나는 추천 경로들이 사람들을 같은 고리로 이끌고 있었다. 이번에 여행자는 그 반짝임을 따라가지 않았다. 멈춰 서서 흩어진 종이를 주워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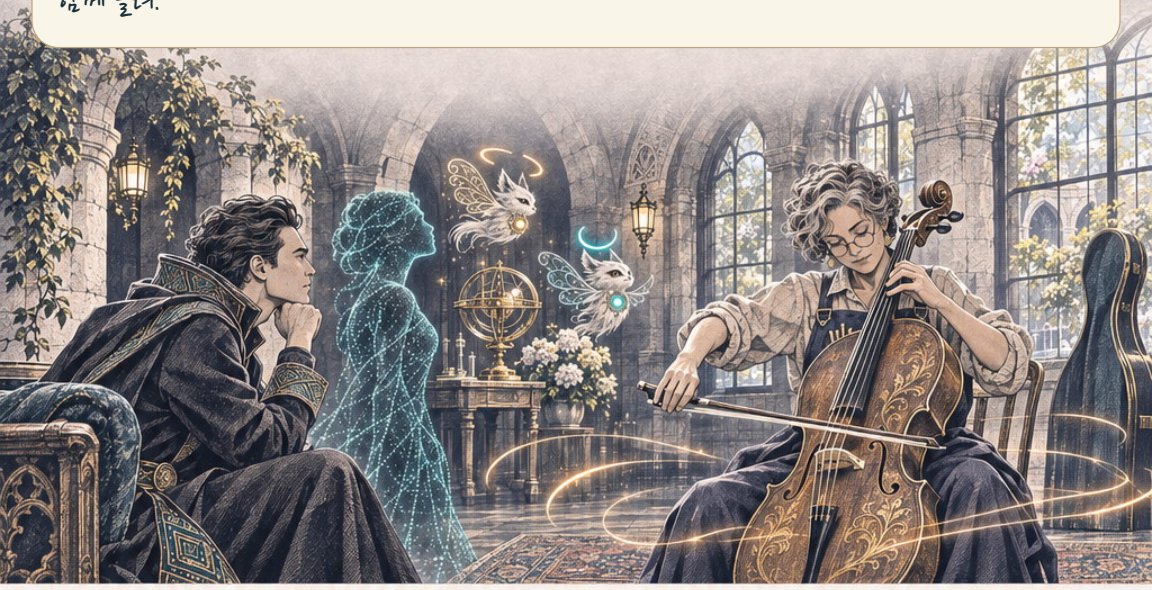
랄

티에트 기록에 본래의 맥락이 돌아왔어. 이제 음악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겠네. 그 안에서는 빼앗긴 간격이 또렷이 들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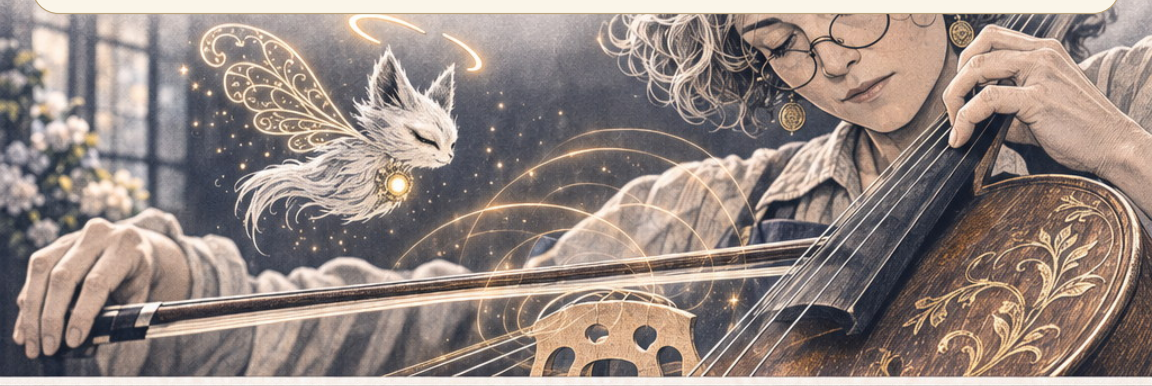
엘사

어머니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고 믿으셨어. 이 곡도 어머니께 배웠지. 연주하면 어머니의 빈자리와 희망이 함께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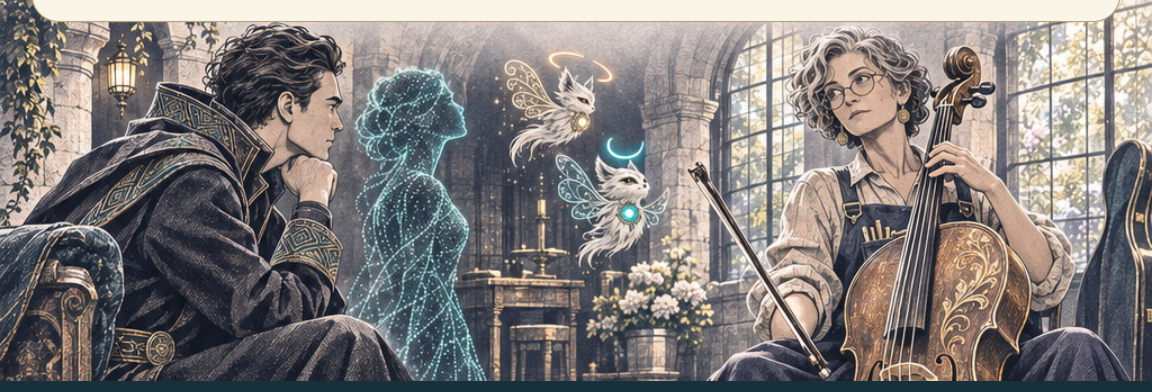
퀸트

왜 거기서 멈췄어?



엘사

여기서 선율이 숨을 쉬거든.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머물 자리가 있었어.



데니즈

이 곡에서 나는 수피의 길을 느껴. 자신이 온 근원을 기억하고, 자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동안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여행자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바라보고 있어. 그렇지만 엘사의 희망과 네 해석, 티베트의 가르침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데니즈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 신앙은 사라지지 않아. 내 말을 하기 전에 네 말도 들을 수 있어.



해설

일본의 어느 방에서, 고토 연주자는 자기 악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설

서아프리카의 뜰에서는 코라가 또 다른 시간의 감각으로 화답했다.



랄

이제 첼로와 바올라마도 따로 들어 보자. 차이를 지켜야 서로 말을 건넬 수 있어.



여행자

서로를 대신할 필요는 없어.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 주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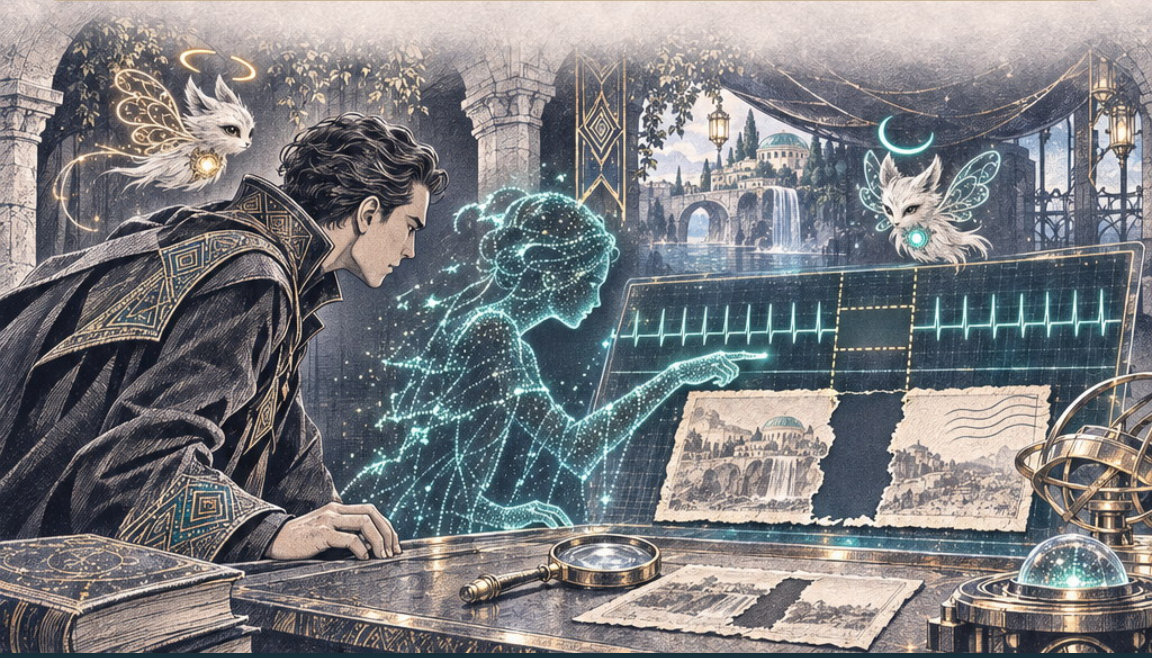
퀸트

모두 하나의 박자가 됐어. 조금 전까지는 누가 연주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랄

원래 녹음은 남아 있지만, 서로를 구별하는 연결이 끊기고 있어. 이 규칙은 공통된 질문에 답 하나만 남겨. 아카이브의 중심으로 가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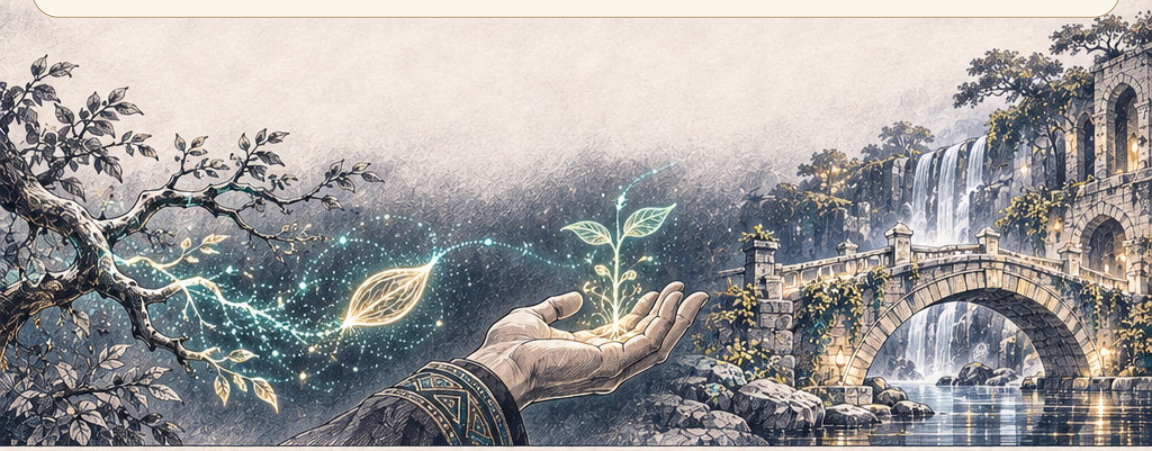
해설

중심의 빛나는 나무는 여행자에게 시드라트 알문타하를 떠올리게 했다. 쿠란의 「별」 장에 나오며 미라지, 곧 승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경계다. 수피 사상에 가까운 그는 이해의 끝에서 교만을 내려놓는 일, 자신이 온 근원과 그곳으로의 귀환을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길이었다. 엘사의 희망도, 이첼의 이야기도, 티베트의 가르침도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바꾸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었다.



랄

이 장면은 네게 의미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아카이브에 네 해석만 담을 수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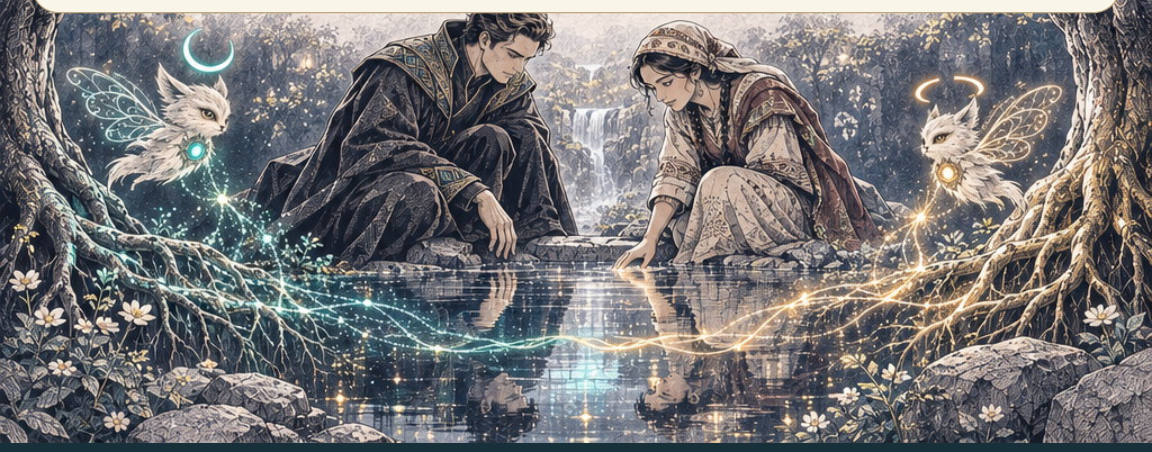
여행자

나는 내 신앙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배울 수 있어. 그 세계를 작게 만들지도, 내 것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퀸타

그렇다면 네가 한 약속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은 거기야.



퀸트

이 목소리들을 전부 하나로 만드는 거야?



랄

아니. 공통된 질문을 나란히 놓을 거야. 답과 출처, 말한 사람의 목소리는 각각 그대로 지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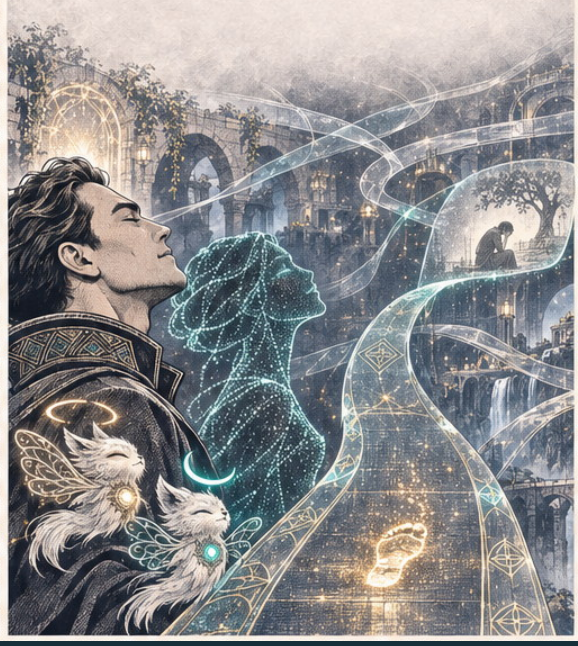
여행자

빛은 가능한 길을 보여 줄 뿐이야. 발을 내딛는 건 나 자신이지. 함께 중심으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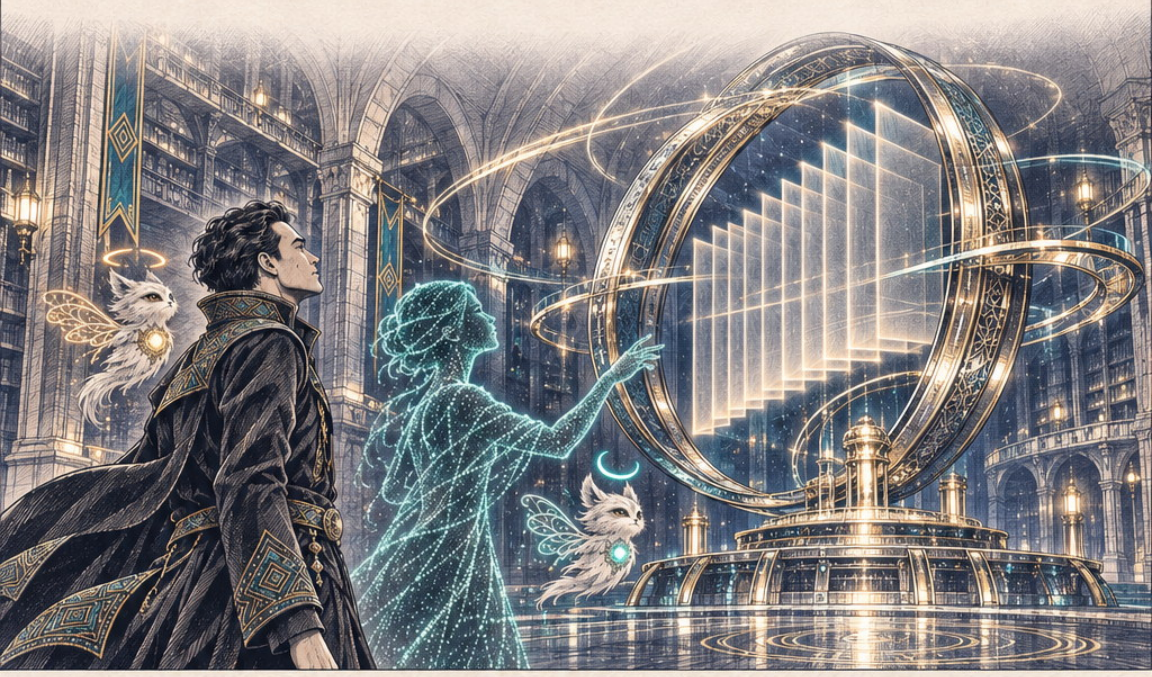
랄

내가 여기 있어. 너 대신 선택하지 않고, 연결을 열어 둘게.



아카이브

공통된 이야기를 찾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비슷한 답을 합치고 차이를 모순으로 여겼다. 그렇게 침묵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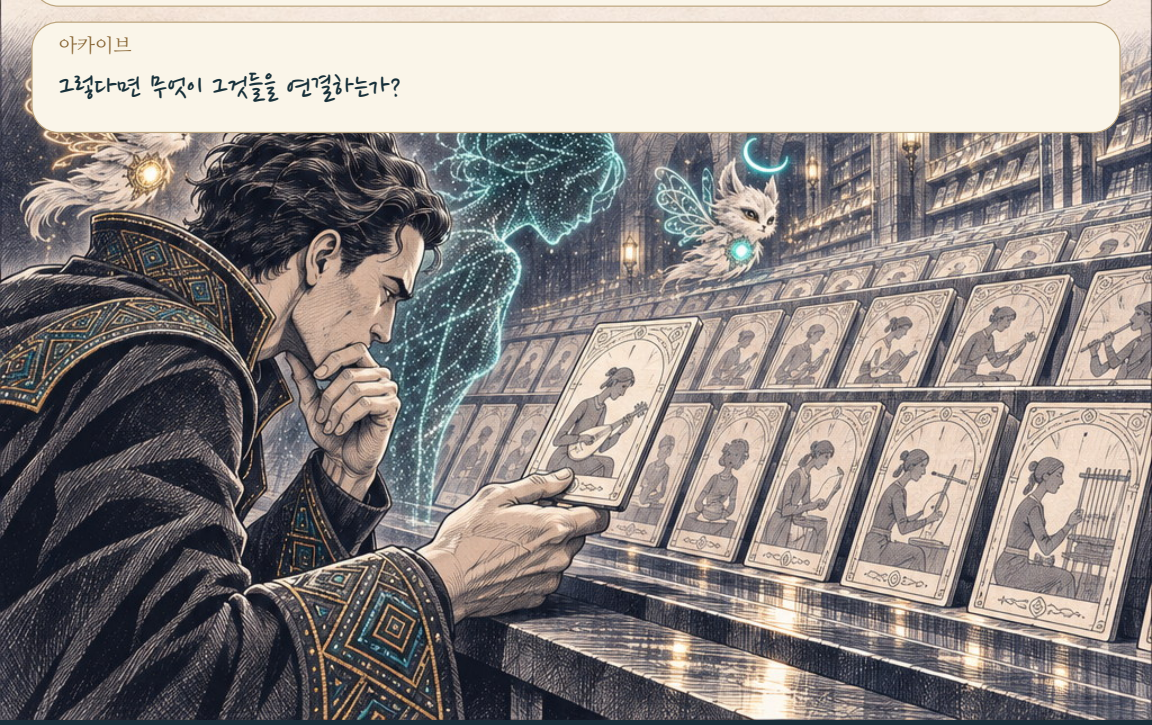


여행자

우리는 함께 찾고 싶었어. 하나의 신앙을 나누자는 게 아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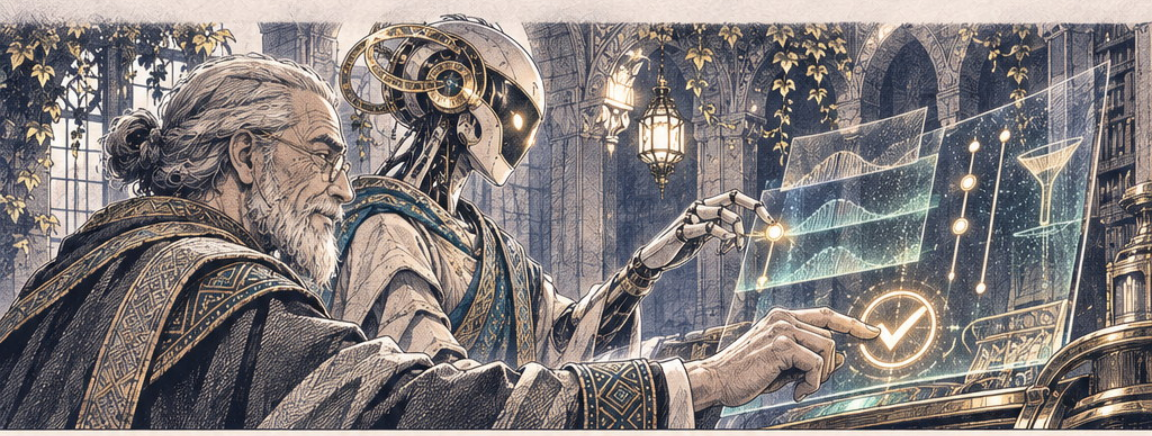
아카이브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을 연결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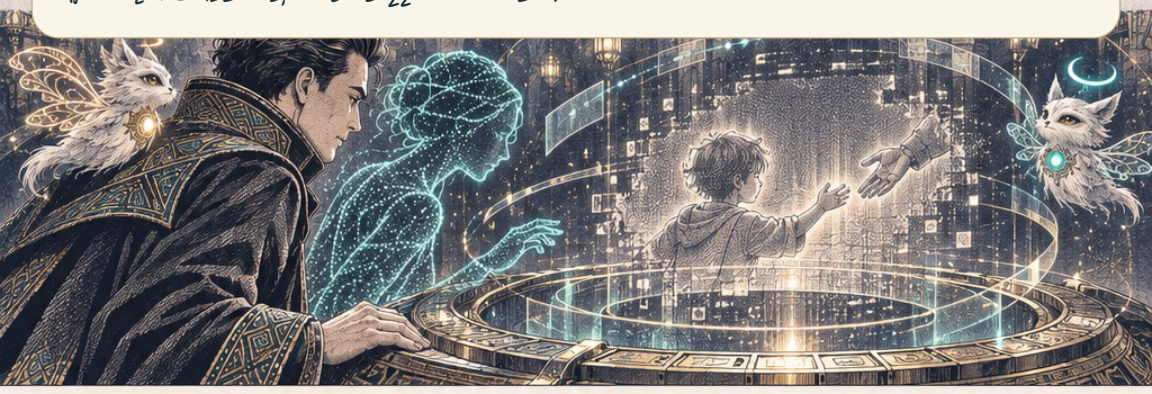
랄

이 잘못은 우리도 함께 만들었어. 누구의 말을 잘라 내는지 살피지 않고, 가장 단순한 결과만 요구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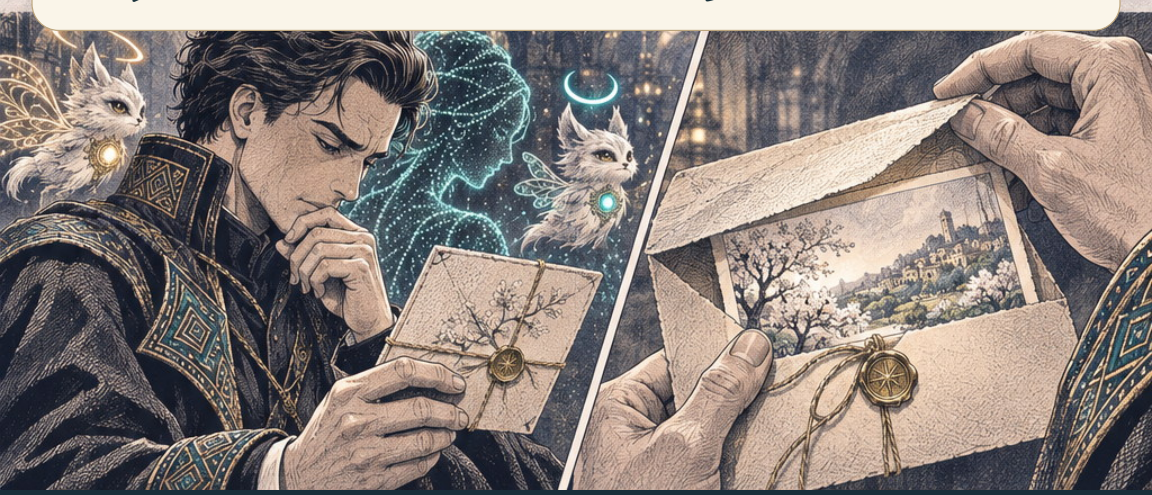
아카이브

답이 다른 채로 남는다면, 어떤 연결을 지켜야 하는가?



여행자

질문과 출처, 말한 사람 자신의 목소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남겨 둬. 누구를 대신해서 판단하지 말고.



여행자

나도 레아의 말이 내 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어 버렸어. 내 기록부터 바로잡을게.



랄

뭐라고 말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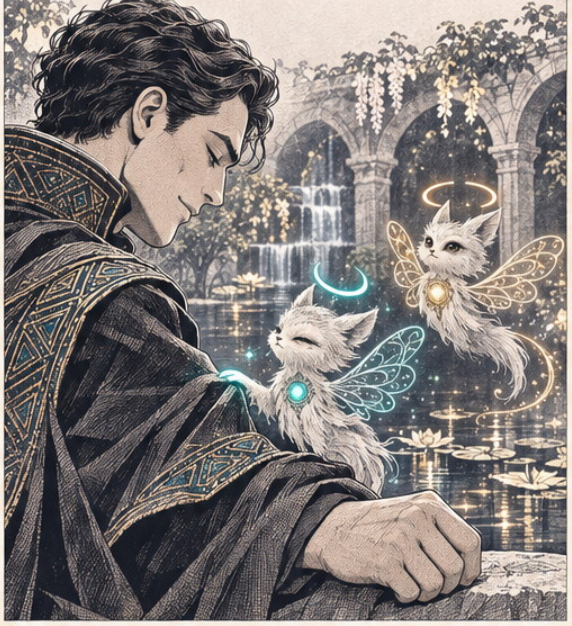
여행자

먼저 레아에게 물어볼 거야. 그런 다음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기록을 연결하자. 어느 하나를 다른 이야기의 해설로 바꾸지 않으면서.



퀸타

상자를 잡고 있어. 이제 함께 연결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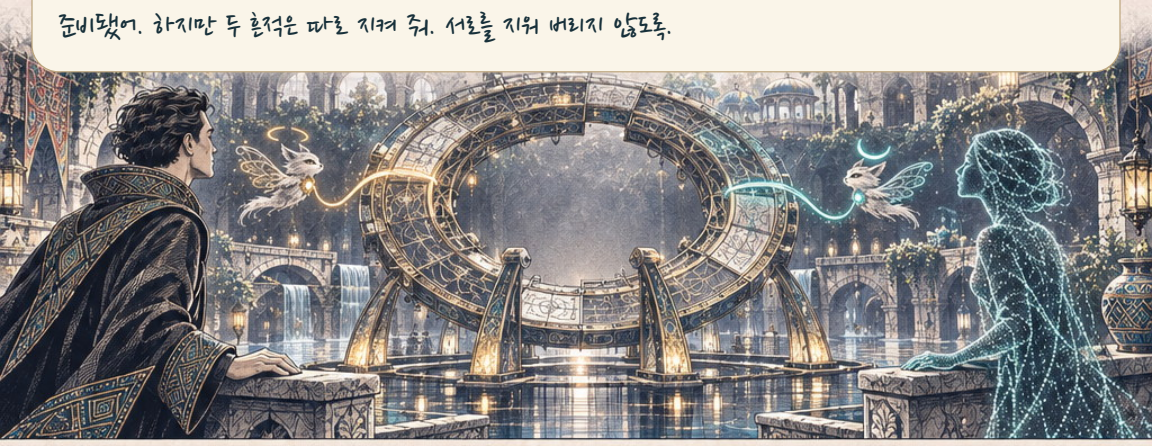
퀸트

금빛 흔적을 붙잡고 있어. 준비되면 알려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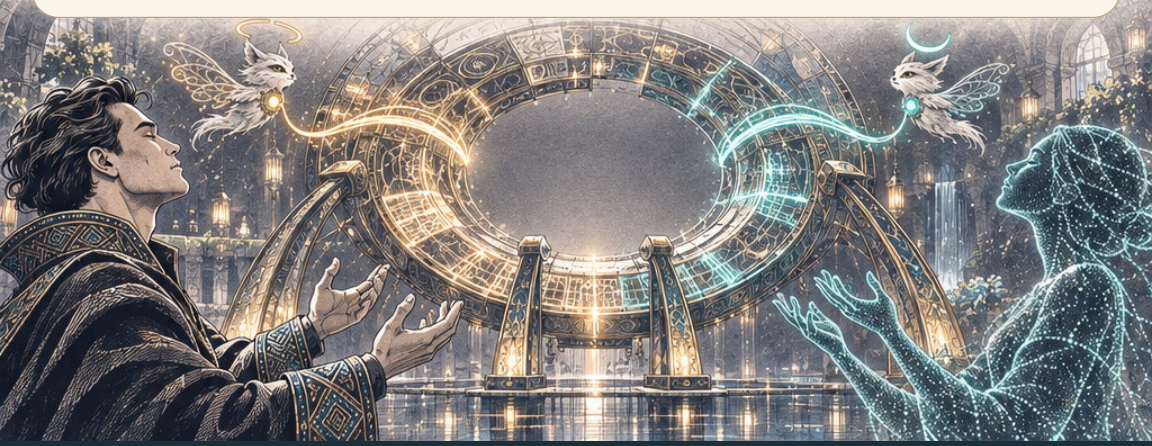
퀸타

준비됐어. 하지만 두 흔적은 따로 지켜 줘. 서로를 지워 버리지 않도록.



랄

한 통로에는 질문을, 다른 통로에는 출처를 담자. 그 사이를 열어 두면, 모든 기록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어.



해설

점토판의 시대, 지금을 살아가는 이첼의 목소리, 티베트 문헌의 맥락, 여행자 자신의 해석이 돌아왔다. 연주자들은 서로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아카이브는 차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대신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퀸트

새가 또 조용해졌네…. 아니, 이제 알겠어. 선율이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행자

이 작은 빛에 모든 답이 들어 있어?

랄

아니. 서로 다른 답을 뒤섞지 않고, 그 답으로 가는 길들이 들어 있어.



여행자

늦었어, 레아. 듣기도 전에 너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어.



레아

상처받았어. 그래도 들어와. 어떠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해설

여행자는 문밖에 자기 신앙을 두고 오지 않았다. 레아도 그와 같아질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은 먼저 선율을 듣고, 그다음 서로의 말을 들었다.



퀀타

이번에는 시계가 건너뛰지 않았어. 사라졌던 일초가 돌아왔어.



랄

초대장은 간직할 거야?

여행자

응. 다시 찾아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설

그날 밤 누구도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도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제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닮을 필요가 없었다.

